

美 워싱턴 D.C.로 유학길 오른 이낙연 전 총리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지지자들에 “저주·공격 정의·선함으로 이겨주길”

尹 정부에 “국가, 매우 송고한 의무 가진 조직 항상 생각해주면 좋겠다”

1년동안 조지워싱턴대서 한반도 평화 등 연구 매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미국 워싱턴 D.C.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를 공부할 계획이다.

미국 유학을 위해 워싱턴 D.C.로 출국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는 7일 “제 출국에 대해 여러 시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국내의 여러 문제들은 책임 있는 분들이 잘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국내가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떠나느냐고 나무란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공부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아직까지 안갔느냐고 하는 분도 있다. 바로 가고 싶었지만 대선 지방선거 때 제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게 맞았다고 싶었다”며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원래는 6월15일 이후 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못가려는 게 좋지 않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대선과 지방선거 연해 이후 ‘이재명 책임론이 민주당을 흔들며 계파갈등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친문재계(친문계) 구

심점인 자신의 출국을 향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데 대한 심경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모여든 지지자들에게는 “스스로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바란다. 세상에는 존중과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사람을 경멸하고 증오한다. 그것을 여러분이 존중과 사랑으로 이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공격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의와 선함으로 이겨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는 지방선거 이후 당내 계파갈등 속에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한 친이재명계(친명계) 지지자들의 공격을 의식한 발언으로 여겨진다.

이 전 대표는 또 “많은 걱정이 있지만 여러분도 지금까지 해 오신 것

처럼 충정으로 헌신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하생하는 그 이름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다. 세상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겠지만 늘 기꺼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헌신 덕분에 세상이 크게 빛나가지 않고 그나마 자리를 찾아간다고 생각한다”며 “강물은 직진하지 않지만 먼 방향을 포기하지도 않는다. 휘어지고 굽어져도 바다에 가는 길을 스스로 찾고 끝내 바다에 이른다. 지지자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당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에 당

부하고 싶은 것을 묻는 질문에 “동지들이 양심과 지성으로 잘 해결해 가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국가란 매우 송고한 의무를 가진 조직이다.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조언을 남겼다

이후 당내 계파갈등에 대한 직접적인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침묵을 지키며 자리를 떴다.

이 전 대표는 1년 간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 평소 관심을 가졌던 남북관계와 외교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한인사회 등과 교류를 할 계획이다. /뉴스시스

도내 기초단체장 당선자들, 민선8기 인수위 구성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

최훈식 민선8기 장수군수 당선인은 7일 실용작이며 실무중심인 인수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당선인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된 최당선자의 인수위는 소규모로 예산을 절감하고 군청 직원들의 불필요한 의견과 잔무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일하는 인수위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인수위 운영 기간은 7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운영방향은 당선자의 정책 및 공약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예산을 고려해 당장 실천할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군정의 잘못을 분석하고 평가하기보다는 민선8기 정책과 공약이 군정에 잘 스며들도록 행정과 협



의를 통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식 당선인은 주요 간부와 상견례 및 업무 보고를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7

개 분야 정책 간담회를 열어 공약에 빠진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수발전의 밑그림을 그려겠다고 말하며 인수위 백서를 작성해 취임 이후에 100년 장수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식 당선인은 화합의 장수를 만들어야 지역발전의 동력을 찾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인수위도 그런 방향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당선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순창군수에 당선된 최영일 당선인의 민선8기 순창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다

7일 오전 최영일 당선인은 17명의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행복누리센터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이지역 위원장과 김용남 부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소통총괄, 행정재정교육, 문화관광복지, 경제산업건설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분야



별 인수위원들은 각 분야 전문성과 신구가 조화를 이룬 실무형으로 꾸려졌다. 최영일 당선인은 “민선 8기 순창군정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전문

성을 갖춘 유능한 지역인재를 인수위원으로 인선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다음달 20일까지 민선 8기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군정 목표와 방침, 공약사항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순창=이양희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이 7일 고창군수 직 인수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연이어 기자간담회를 개최 선 거기간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심 당선인은 고창전지훈련트레이닝센터 2층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서 “심덕섭을 뽑아주시고 고창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어렵게도 이번 선거로 인해 진영이 나누어져서 많은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군수 당선자로서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소통하고 협력해서 화합하는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진영의 분분도 포용하고 모든 군민이 군정에 참여하는 ‘고창원팀’이 되는 그런 군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현재, 참패와 소멸 위기에 빠져있는 우리 고창을 활력 넘치는 더 좋은 고창으로 만들려는 군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당선인은 “저는 군수에 취임하면,



시급한 현안으로 코로나19로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고창의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일과 사회적 갈등 등 현안이었던 고수신단 도축업 입주 문제로 규

정과 원칙에 따라 재검토하여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근거 오늘(7일)부터 고창군수 직 인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조금 전 10시에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는 김인호(전 고창군 부군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했고, 인수위에서는 군정 지표를 만들고 고창군의 조직과 기능 및 예산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와 군민들에게 이수인 현안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선8기 인수위는 7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노인복지시설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민주 윤준병 의원, 법안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7일,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롯해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해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로시설·요양시설·노인

숙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학·철도·선박·공동주택·사업장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복지관·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이 이용·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를 갖추

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국 8만여 곳의 노인복지시설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특히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은 심장 질환을 비롯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대단히 높지만 정작 어르신들이 이용·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음=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